

미일남조선 《3각공조》의 실체를 해부한다

미국과 일본것들이 새해벽 두부터 외교부장관회담과 국방장관회담, 수뇌회담을 연이어 벌여놓고 미일군사협력강화와 남조선미국일본 《3각공조》 등을 공고히 하는 문제들을 모의하였다. 일본을 전범국으로부터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둔갑시킨 미국과 제침의 칼을 빼들고 미국의 패권전략실현의 제일가는 돌격대로 나서고있는 일본. 미일사이 그리고 미국과 일본, 남조선사이의 군사적결탁의 위험성과 엄중성은 무엇인가.

전범국의 감투를 벗어던지고 침략의 칼을 가는 사무라이후예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일본의 속망은 《자위대》를 과거의 《황군》으로 부활시켜 침략의 칼을 또다시 휘두르며 조선반도와 대륙으로 진출하는것이였다.

지금 섬나라것들은 전범국의 감투를 벗고 《대동아공영권》의 옛본을 실현할 기회가 왔다고 환성을 지르고 있다. 미국이 일본의 침략적인 국가안보전략계획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시하고 선제타격능력보유선언과 그를 위한 방위비증액 등 군사대국화에 나서고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기때문이다.

아직도 없을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과 정세 및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미일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일본의 《패전국》굴레를 벗겨주고 군사대국화라는

섬나라를 군사대국화와 재침에 주동하는 주범

자들의 세계패권전략실현에서 《방패》노릇을 하던 섬나라에 《창》의 역할을 부여한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재침책동을 더욱 부추기고있다. 지금 미국은 인디아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부가 주일미군을 지휘하던 종래의 체계를 주일미군사령부가 일본 령도와 그 주변지역에 배치된 미군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체계로 바꾸려고 시도하고있다. 또한 주일미군과 일본 《자

나갈을 달아주었다. 미국이 일본에 군사적제약을 더이상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일본의 군사적책상은 동북아시아지역을 군비경쟁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하고 우발적인 충돌가능성을 증대시키는것이다. 일본이 조선반도의 긴장을 사실상 군사적개입까지 한다면 제침의 기회까지 조성될 수 있다 등으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미국과 섬나라의 추악한 손아래동맹자, 하수인

미일사이의 《밀월》관계에 안철부절 못하는것은 윤석열 역적패당이. 그리지 않아도 윤석열역도는 《핵공동연습》이니, 《자체핵무장보유》이니 하며 정초부터 멋없이 날뛰다가 미국상선으로부터 린이러 면박만 당하였다. 일본은 또 그들대로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전범기업들이 몰아야 할 배상금을 저들이 대신 지불한다는 공욕적인 방안을 내든 윤석열역적패당에게 더 노력하라고 다들러대며 오만하게 놀아내는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독도가 저들의 《고유한 령토》라고 거리낌없이 땅발질하고있다.

을 일본에 군사대국화를 통해 보충하려는 미국의 흥심의 발로이다.

미국과 섬나라의 추악한 손아래동맹자, 하수인

들이 미국이 남조선보다 일본을 더 내세우고있다. 전범국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지해주는것은 너무나하다. 윤석열이 미일의 군사적협력강화에 무력대고 맞장구를 칠것이 아니라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비난하고 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하지만 윤석열역적패당에게 무슨 보충한 수가 있겠는가. 미일상전에게 굴종하고 발라맞추는것이 체질화된 식민주주, 하수인인 역적패당이 할수 있는 일이란 상전들이 하는 짓거리가 쓰든달든 순종하고 따르는 길밖에 더는 없기때문이다.

미국과 섬나라의 추악한 손아래동맹자, 하수인

일본을 세계패권전략실현의 제일가는 돌격대로 내세우며 미국과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 광분하는 섬나라것들, 두 상전의 짝에 끼워논침만 보면서 아무굴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 이 추악한 무리들의 《3각공조》가 우리 민족, 세계평화에호인민들에게 가져다줄것이란 불행과 고통, 재앙밖에 없다.

미국에 의해 섬나라는 조선반도와 대륙에 대한 침략의 길에 공공연히 나서고있다.

미국과 섬나라의 추악한 손아래동맹자, 하수인

미국에 의해 섬나라는 조선반도와 대륙에 대한 침략의 길에 공공연히 나서고있다.

미국과 섬나라의 추악한 손아래동맹자, 하수인

미국에 의해 섬나라는 조선반도와 대륙에 대한 침략의 길에 공공연히 나서고있다.

식민지하수인의 비후역은 추대

최근 남조선호전광들이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계기로 《유엔군사령부》체계개선을 위한 성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설쳐대고있다. 역적패당은 회의를 열게 하다가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회의》, 《2023년 서울안보대화》와 병행하여 개최하며 《유엔군사령부》성원국들이 조선반도유사시작침전사과 저들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조작발표하였다고 떠들고있다. 또한 저들과 미국 《유엔군사령부》의 성격규정, 인원확충, 성원국들사이의 결속력강화 등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실현의 돌격대, 늑거리대포뱃이 되어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천하역적, 극악한 대결광들의 매국배주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미국의 가련한 식민주주에 불과한 역적패당이 그 무슨 《유엔군사령부》 성원국들의 국방장관회의를 주최

한다는것자체가 어찌구무이고 불쌍사남기 그치없는 추태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입을 올리는 《유엔군사령부》로 말하면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유엔원장을 란족하게 위반하고 저들의 추종국가군대를 조선전선에 끌어들이기 위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작한 불법적인 기구로서 미국을 우역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대명사이다. 하기에 유엔관계자들자체가 《이름과는 달리 유엔사는 유엔에 따르는 기구나 조직이 아니다. 유엔의 지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안보리사회 산하단체도 아니다. 따라서 유엔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며 유엔사와 유엔사 무국간에 어떤 보고체제도 없다.》고 하면서 《유엔군사령부》의 불법성과 침략적책임을 폭로하였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이러한 불법적이고 침략적인 기구의 《체계개선》과 《재침전사확인》, 《결속강화》 등을 떠들고있는것은 유사시 미국주도의 다국적무력을 또다시 끌어들이어 우리 겨레에게 참화를 들춰우려는 흥심의 집 증적인 발로이다. 현실적으로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지난 시기 《유엔군사령부》의 간판을 내걸고 미국의 추종국가무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여려는 기도를 포괄적으로 드러냈고 특히 윤석열역적패당은 앞으로 진행하려는 남조선미국

개항부나한 대결광의 뽀얀정광태

지난해 윤석열역적패당의 광란적인 전쟁대결책동으로 하여 항적인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온 남조선민심은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소망하고있다.

그러나 윤석열역적패당은 년초부터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대결소동에 광란적으로 매여달리는것으로 남조선 각계층의 평화에 대한 념원을 마구 짓밟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1월에 벌어진 역적패당의 호전적방발들과 군사적대결책동이 그것을 말해준다.

새해 첫날부터 군부의 우두머리들과 화상대화놀음을 벌여놓은 윤석열역적패당은 《새해이지만 안보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고 횡성수설하다 못해 《군은 《일선불사》의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도 확실히 응징해야 한다.》고 기령을 토했다. 지어 역도는 제 집안에서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행각하면서까지 《우리의 적은 북》이라는 망발을 거리낌없이 내뱉어 사람들로부터 《전쟁열이》를 떠뜨리는 정신나간 머저리라는 비난을 자아내었다.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

최군 윤석열역적패당이 증동의 어느나라를 행각하는 과정에 현지에 파병된 남조선 군부대를 돌아치며 《우리의 적은 북》이라고 떠벌이며 극도의 대결의식을 고취하였다. 국약무도한 동족대결광, 호전광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적대적망동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사설 남조선의 력대 집권자들치고 공화국을 적대시하지 않은자들이 없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이 나가서까지 《북주적론》을 내세운 대결악한은 없었다. 역도의 이번 망동은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가장 악랄한 적대행위이고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북주적론》

에 한사코 매달리는것은 그것이 저들의 생존수단, 명줄이기때문이다.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 적대감의 발현인 반공화국전쟁대결정책은 물론 파썬통치, 친미사대매국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주적》이 있어야 했고 《안보불안》세력이 존재해야만 사대매국과 전쟁대결, 파썬을 생리코 하는 저들의 집권을 유지할수 있다는것이 윤석열역적패당의 추악한 생존관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제 집안에서 《북주적론》을 떠들다 못해 밖에 나가서까지 《우리의 적은 북》이라고 공공연히 뽀얀정광태를 뽐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이번 해외행각과정에 공화국을 또다시 《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명분을 명백히 기정사실화하였다. 《주적》과의 대결은 기필코 물리적충돌, 전쟁으로 이어지기마련이다. 공화국을 교전상대로, 《적》으로 삼았기에 역도는 년초부터 《북》의 핵을 두려워하지 말라. 《북을 확고하게 응징복복하라.》고 피대를 들우며 무분별한 반공화국전쟁대결소동에 광분하고있는 것이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추구는 호전광이 바로 윤석열역적패당이다. 미친게는 제 죽을줄도 모르고 마구 짓대고 상대를 격리하지 않고 타치는대로 물어뜯고려 한다. 공화국에 비한 군사적렬제로 극도의 불안감과 위기의

식에 허덕이는 윤석열역적패당은 지금 미친개처럼 분별을 잃고 날뛰고있다. 이 발악적광태를 수수방관하면 재난과 참변이 닥쳐오기마련이다. 온 겨레를 류형과 참속에 불어넣으려는 윤석열역적패당과 그 패거리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진짜적적이요 천하에도 없는 재앙거리이다. 남조선 각계가 《윤재앙이 전쟁을 입에 달고 사니 올해 큰일 한번 나겠다.》고 하면서 반윤석열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의 극악한 주적인 윤석열역적패당과 그 패당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것이다.

남조선민심의 치솟는 분노의 표출

— 새해에도 고조되는 반윤석열투쟁기운 —

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군부 우두머리들도 《북》에 대한 압도적대응능력구축》과 《립전필승》,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에 대해 떠벌이고있다. 이러한 전쟁폭언들이 린이러 쏟아져나오는 가운데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는 북침전쟁소동이 린이러 벌어지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지난 2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해안에서 복침을 가상한 상륙훈련을 강행한데 이어 4일에는 수많은 군함들과 전투기들을 동원하여 올해 첫 전대군해상기동 및 실탄사격훈련을 감행하였다. 또한 남조선강경 미군과 야외기동훈련과 실탄사격훈련, 대량살상무기제거훈련 등 각종 연합훈련들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역적패당의 군사적대결광기가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년초부터 반공화국대결

의 대책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고있다. 400여개의 진보 및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반도종진평화감싸이와》와 《그리스도교녀성청년회》, 《시민평화포럼》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역시 윤석열역적패당의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대중투쟁을 동시다발적으로 파감히 전개해나간다고 하고있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조발승리전환행동》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도 윤석열역적패당이 올해에 외세와 빌려놓으려고 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이 조선반도의 군사적위기를 격화시키고 남조선의 《안보불안》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역적패당을 단죄하고있다. 특히 미국핵전략자산들의 상시적인 조선반도전개와 린이러 북침합동군사연습, 광란적인 군비증강책동과 같은 적대행위들을 중단시키는데것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사회의 각계층이 모두 떨쳐나 역적패당

의 대책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고있다. 400여개의 진보 및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반도종진평화감싸이와》와 《그리스도교녀성청년회》, 《시민평화포럼》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역시 윤석열역적패당의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대중투쟁을 동시다발적으로 파감히 전개해나간다고 하고있다.

《윤재앙이 전쟁을 입에 달고 사니 큰 번이 나겠다.》, 《전쟁기 전에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자.》, 이것이 《전쟁미치광이》인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해야 한다는 남조선

민심의 반영이다. 한편 남조선의 운동단체들은 윤석열역적패당을 강행추진하려는 《로동개혁》과 로동운동단합책동을 반대배격하는 투쟁도 적극 벌이고있다. 《민주로총》, 《한국로총》과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비정규직공동행동》, 《직장갑질119》를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은 새해 첫날부터 린평, 성명, 성토문 등을 통해 윤석열역적패당을 《로동자들에 대한 재벌들의 착취날개를 달아주는 반로동정책》, 《로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임금은 적게 주겠다는 현대판노예정책》으로 략인하면서 단호히 반대배격하고있다. 서울, 대구를 비롯한 각 지역의 로동운동단체들의 성토모임들에서도 역도의 《로동개혁》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민주로총》산하 건설로조와 화물련대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로동시장유연화》, 《로조

《〈안보〉 초학도때문에 불안하다》

얼마전 윤석열역적패당이 《안보》의 최대위협요인으로 되고있다고 강하게 몰아왔다. 남조선언론, 전문가들도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괴할수 없다고 우려하고 각계층에서는 전쟁이 터지기 전에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야 한다는 비난과 주장이 터져나왔다. 야당들은 조선반도를 화약고에 빠뜨리고 경제에 관물을 끼어있는 역도의 무책임한 발언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 《안보》초학도인 윤석열때문에 지역의 평화와 경제가 위협당하고 주민들이 불

안에 떨고있다. 윤석열자체가 《안보》의 최대위협요인으로 되고있다고 강하게 몰아왔다. 남조선언론, 전문가들도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괴할수 없다고 우려하고 각계층에서는 전쟁이 터지기 전에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야 한다는 비난과 주장이 터져나왔다. 야당들은 조선반도를 화약고에 빠뜨리고 경제에 관물을 끼어있는 역도의 무책임한 발언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 《안보》초학도인 윤석열때문에 지역의 평화와 경제가 위협당하고 주민들이 불

《확장적력》강화가 답이아니니 하고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자기의 무분별한 망발이 어떤 화를 불러오는지도 모르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어리석은 추태에 대해 국제사회도 세계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행위로서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고 단죄하고있고 지어 미국상전까지도 윤석열의 《자체핵무장》발언이 남조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남조선미국 《동맹》을 분열시킬수 있는것이라고 하면서 압박을 가하였다.



사람을 뽑았어야지

김태룡
아무리 각박하고 모진 세월에 있어도 희망을 잃는다면 이데올로기에도 피차반일이라 한들 한번쯤이야 속고를 했어야지 —이게 나라냐!— 어제를 후회하는 오늘의 뼈아픈 실책. 통절한 가슴들엔 피로 맺힌다. 속이는 세상에 속아 사는 인생까지 한 번 더 속는셈치지. 후시 알겠나 했더니 후시는 내내. 미련 가진대도 바랄걸 바랬어야지. 민생이 구겨지고 앞날은 막막하니. 내주는 한숨에 진하게 묻어나오는 장탄식은 어느 세월에도 곁이 나려나. 울분이 키운 황거는 깃밟혀야 하고. 위선과 불의는 진실을 죽여버린다. 삭일수 없는 울화가 갈거리. 찢는 가슴. 죽기가 딱 좋은 사회! 참아 묵새기는것도 정도가

사람을 뽑았어야지! 사람을 뽑았어야지!